

‘20.03.14(토) 조간부터(온라인 20.03.13(금) 오전 9시 이후)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자료문의) 총무구매팀 최현 행정원 (☎053-980-8221, ch008@kbri.re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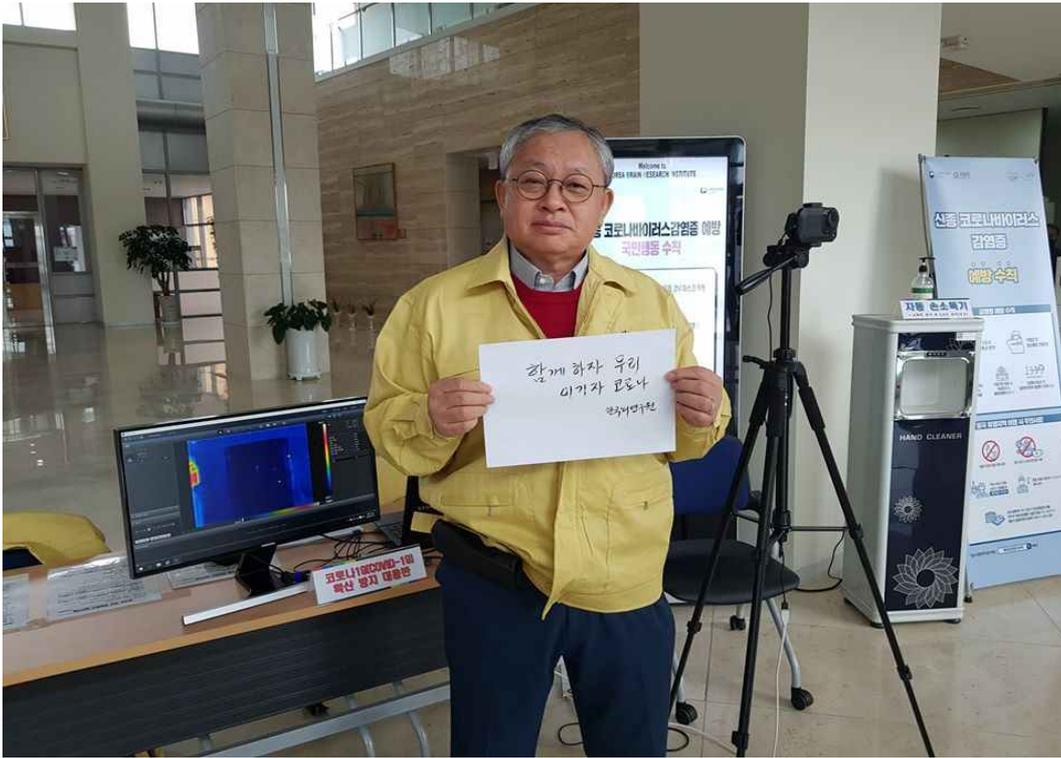
한국뇌연구원, 코로나19 성금 모금 및 위문품 전달

- 지역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전 임직원 자발적 성금 모금
-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(중앙교육연수원)에 위문품 전달

- 한국뇌연구원(KBRI, 원장 서판길)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(COVID19, 이하 코로나19)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한 성금과 위문품을 생활치료센터(중앙교육연수원)에 13일(금) 전달했다.
 -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(약 200만원)으로 구입한 과일, 음료, 제빵류 등 위문품을 대구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중인 중앙교육연수원에 기탁했다.
- 한국뇌연구원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연구원 내부 건물 전체 방역을 실시하고, 자율적 재택근무제 실시, 정문 출입문 통제, 출근직원 발열 체크, 수시 손씻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 - 우선 실험동물센터, 첨단뇌연구장비센터 등 첨단 뇌연구 인프라에 대해서 사전 철저한 방역과 출입통제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.
 -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재택근무 및 도시락 취식으로 인해 식수인원이 줄어들음에 따라, 구내식당 위탁관리업체의 임대료를 6개월간 30% 감면하는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.

- 또한, 서판길 한국뇌연구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SNS 손글씨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여, 환자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을 응원하고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.

- 한국뇌연구원 서판길 원장은 “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구 시민들과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피해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” 며 “하루 빨리 이번 사태가 안정화 되어 많은 분들이 평소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” 고 말했다.



[사진1] 한국뇌연구원 서판길 원장이 코로나19 극복 “손글씨 릴레이 캠페인”에 참여하여 대구경북지역 주민들과 현장 의료진을 응원하고 있다.



[사진2] 한국뇌연구원 서판길 원장과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금한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.